

# 추석 귀성객 10% 증가...대중교통 이용 늘고, 비용 2배 꺾충

하루 평균 이동 603만명, 작년 추석 보다 10.4% 증가  
거리두기 해제에 대중교통 이용 9.4%로 늘어날 전망  
교통비용 두배 늘어난 22만원...유류비·물가상승 원인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작년 추석 연휴 때보다 10.4%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1만 512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8일~9월12일)'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추석(546만명)보다 10.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초 처음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542만 대

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추석(478만대) 대비 13.4%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승용차 이용 비율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 비율이 90.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작년 추석 승용차 이용 비율 92.9% 보다 2.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버스·철도·항공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9.4%로 작년 추석 7.1% 보다 2.3%포인트 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 예상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버스 3.8%, 철도 3.0%, 항공기 1.7%로 조사됐

다.

이에 정부는 귀성객 급증에 대비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평시 일평균 4468회 대비 23%(1026회) 증가된 5494회를 운행한다. 철도의 경우에도 대책기간 중 총 122회(4096~4218회) 증편 운행한다. 항공의 경우에도 추석 연휴기간 국내선 총 225편(3095~3320)을 증편 운행한다.

추석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으로 24.4%이며, 서해안선 12.1%, 호남선(철안-논산) 9.8%, 영동선 7.7%, 중부선(통영-대전) 7.6%, 중앙선 7.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귀경 시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2만원으로 유류

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연휴기간(10만8000원)보다 약 11만2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추석은 48.4%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며, 27.6%가 안 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4.0%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계획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명절에 이동하지 않음'이 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코로나19 때문에'(22.3%), '교통혼잡'(12.4%), '생업'(10.2%), '지출비용 부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승호기자

## 가뭄에 봄감자 생산량 20% 감소...농산물 가격 상승에 악재

통계청, 2022년 봄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20%나 줄었다.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5~6월 가뭄이 지속된 탓인데 가격도 크게 올라 식탁 물가 상승에 악재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봄감자 생산

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0만3243t으로 전년(37만9672t)보다 20.1% 감소했다.

봄감자 생산량은 2017년 32만1518t까지 줄었다가 2019년 46만5948t으로 증가한 뒤 2020

년과 지난해 37만t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

봄감자 생산량이 30만t가량에 머문 것은 지난 2003년(30만2000t) 이후 처음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한 것이다.

감자 재배면적은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확보 어려움으로 전년(1만4266ha)보다 8.7%(1248ha) 줄어든 1만3018ha로 조사됐다. 10a당 생산량도 2329kg으로 전년(2661kg)보다 12.5%(332kg) 줄었다.

통계청은 "감자가 자라는 5월 봄가뭄 피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특히 5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노지 발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끼쳤다.

봄감자 생산량 감소는 올해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8월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나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감자 20kg당 도매가격은 평균 4만4820원으로 1년 전(3만4416원)에 비해 1만원가량 비싸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봄감자 생산량이 줄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예년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달 하순부터 고랭지 감자가 출하가 시작됐고, 추석이 지나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CJ웰케어, CJ BYO 하이프로틴 유산균 출시

CJ웰케어는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와 배변 활동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CJ BYO 하이프로틴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단백질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허 받은 장 유산균 CJLP243과 프리미엄 단백질을 담았다.

여기에 7가지 곡물을 더해 하루 한 포 물에 섞어 고소한 맛의 단백질 유산균을 즐길 수 있다.

CJ웰케어는 최근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CJ BYO 하이프로틴 유산균'을 개발했다.

프리미엄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1대 1 비율로 배합해 소화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등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식약처 일일섭취 권장 기준의 175%에 달하는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장 유산균 CJLP243은 CJ제일제당의 60년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한식 발효식품 유래 식물성 유산균으로, 위산을 견디고 장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



여기에 '4중 코팅 기술'로 유산균에 보호막을 만들어 한 층 생명력을 향상시켰으며,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CJ웰케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소 윤현선 박사는 "단백질 웨이크나 음료 등 간편하게 단백질 균형을 챙길 수 있는 대체제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라며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인증 받은 CJ BYO 하이프로틴 유산균의 품질력을 앞세워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30주년 기념 캠페인

불고기버거 단품 메뉴, 약 33% 할인 판매



롯데리아가 1992년 첫 선을 보인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7일 밝혔다.

먼저 롯데리아 브랜드 모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신규 TV 광고

를 선보인다. 7일, 23일, 30일에는 불고기버거 단품 메뉴를 약 33%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오는 22일에는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한 루프스테이션 익선에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을 기념하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이곳에서는 불고기버거의 과거·현재·미래 메시지를 전한다.

아울러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 기념 공간 전시 및 92년생 신진 아티스트와 컬레버레이션한 예술 작품 등을 전시 등을 진행한다. 전시를 통해 롯데리아는 향후 출시 예정인 한정 버거를 소개한다.

이슬비기자

## 세븐일레븐, 페파피그 완구 등 할인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페파피그 완구 3종과 포켓몬 피규어 12종을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페파피그 완구 3종은 '페파피그 별문파크', '페파피그 스쿨플레이세트', '페파피그 위블스 페파하우스'로 페파피그 피규어와 다양한 놀이 완구로 구성된 상품이다.

모두 미국 완구 1위 업체 헤즈브로의 신상 완구로 품목당 100개 한정으로 세븐일레븐에서만 최대 55% 단독 할인 판매한다.

같이 선보이는 포켓몬 피규어는 큐브 속 얼굴이 변하는 '포켓몬 페이스 피규어'로 몬스터볼 안에 12종의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상품이다. 세븐 앱을 통해 1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상품



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스페셜 행사를 기획했다. 실제 지난 5월 페파피그 인기 완구 5종을 업계 단독으로 50% 할인 판매해 모바일 앱 판매 상품 중 최고 판매고를 올렸고, 지난 8월엔 세븐일레븐이 조성한 포켓몬 플레이존 굿즈샵에 연일 방문객이 몰리기도 했다.

서선욱기자

## 이마트24, 추석 맞아 반값 명절도시락·명인 소곡주 선봬



편의점 이마트24가 추석을 맞아 반값 명절도시락과 명인 소곡주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판매하는 '한가위 한색도시락(8000원)'은 모듬전(갯잎전·김치전·부추전·동그랑땡·고기말이), 삼색나물(시금치·콩나물·고사리나물), 소불고기, 잡채 등 명절 대표음식

혼추족 늘어나...집에서도 명절 분위기 내도록

으로 구성돼 있다. 소포장 고추장이 동봉돼 있다. 이마트24는 올해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을 포기하고 혼자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물가인상으로 추석 먹거리 준비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명절 도시락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명절도시락 반값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카드(농협·현대·하나카드)로 명절도시락을 결제 시, 1인 1회에 한해 반값인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을수 소곡주'(360ml)도 단독으로 선보인다. 소곡주는 누룩을 적게 사용하여 빛은 전통주다. 이 상품은 국내 유일의 소곡주 명인인 '우희열 명인'(충남무형문화재 제3호)이 만든 전통 술인 '한산소곡주'에 이마트 24만의 디자인으로 변화를 줬다.

수을수를 소곡주는 이마트24가 지난해 '아

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1'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을수' 디자인을 한산소곡주에 새롭게 입혔다. 패키지도 디자인에 어울리게 짙고 트렌디하게 바꿨다.

'수을'은 '술'의 옛말이다. 우리의 술과 문화가 세계에 공존하며 그 가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했다. 옛 선조들이 시와 음악을 벗삼아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술을 즐기던 우리 고유의 술 문화를 표현하고자 세종이 창안한 한국 최초의 유량약보(음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악보인 '정간보')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전통주 라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했다.

수을수 소곡주는 들국화의 그윽한 향이 나는 약주로,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며, 가격은 7900원이다.

뉴시스

## 하이트진로, 테라 1.9리터 대용량 페트 출시

하이트진로는 테라 1.9(리터) 신규 페트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테라는 기존의 1L, 1.6L 맥주 페트 제품과 함께 총 3종의 대용량 페트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여행, 캠핑 등 야외활동 수요가 늘면서 휴대성과 가성비 좋은 페트 제품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조사를 통해 1.6L가 부족한 소비자를 위해 용량을 키운 페트 제품 출시를 결정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맞춰 용량은 키웠지만 출고가는 인하여 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 높였다. 신규 페트는 7일 출고를 시작으로 전국



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순차적으로 입점 예정이다.

오유라기자